

'IPO 시장 대어가 온다'

에이피알,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통과

- ▶ '2024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뷰티테크 대어 에이피알'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통과
- ▶ 가까운 시일 내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대표주관사 신한투자증권-공동주관사 하나증권
- ▶ 2023 3분기 누적 매출액 3718억 원, 영업이익 698억 원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산업부/증권부 동시배포

<2023-12-12> 2024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 (대표이사 김병훈)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이하 거래소)는 12일 에이피알의 주권 신규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에이피알이 상장 규정상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합한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에이피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오 등의 뷰티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널디,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그래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론칭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는 올해 11월 둘째 주 기준 국내외 누적 판매 150만대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했다.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세를 타고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3977억 원의 93.5%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69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392억 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3분기 해외 개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5% 증가한 561억 원을 기록했다.

에이피알 김병훈 대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심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됐다"며 "이어지는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전반적인 상장 과정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피알의 상장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